

YUEFUSHI YANJIU

박정양 저

민족출판사

리익의 《성호악부》, 신

조선악부시연구

박 정 양

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朝鲜乐府诗研究 / 朴正阳著. —北京: 民族出版社,
2006.4

ISBN 7-105-07637-2

I. 朝... II. 朴... III. 乐府诗—研究—朝鲜—朝
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312.072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6) 第032813号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www.e56.com.cn>

北京市迪鑫印刷厂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6年6月第1版 2006年6月北京第1次印刷

开本: 787毫米×1092毫米 1/16 印张: 27

字数: 400千字 定价: 32.00元

该书如有印装质量问题, 请与本社发行部联系退换。

(朝文室电话: 58130534; 发行部电话: 64211734)

总 序

《延边大学朝鲜—韩国语言文学学科系列研究丛书》即将陆续推出。此系列丛书集中了延边大学朝鲜—韩国语言文学学科在“十五”期间所取得的重要科研成果。

延边大学是一所民族特色鲜明的综合性大学，朝鲜—韩国语言文学学科自建校初期就开始担负起本大学教学、科研的重任。经过半个多世纪的建设和发展，朝鲜—韩国语言文学学科不仅成为延边大学的龙头学科之一，而且在国内外同类学科当中也确立了其独特的地位。本学科于2002年被评为国家级重点学科。

在上世纪90年代，尤其在“十五”期间，随着延边大学“211工程”建设的全面展开，朝鲜—韩国语言文学学科的建设也迎来了全新的机遇和进一步发展的的大好局面。以“凝练学科方向、强化学科交叉、发挥双语双文化特色优势”为主要思路，通过人才引进和师资队伍建设和教学科研体系的全新规划等一系列卓有成效的举措之相继实施，本学科在教学、科研领域得到了长足的发展。

在科研项目的规划与实施上，本学科本着紧跟学科前沿领域研究的宗旨，力争体现延边大学朝鲜—韩国语言文学学科所独有的特色与优势。“中国文字音韵对朝鲜(韩国)文字生活的影响”(教育部普通高校人文社科重点研究基地重大项目)、“中朝韩日诗歌比较研究”(教育部普通高校人文社科重点研究基地重大项目)、“朝鲜族民俗文化及其中国特色研究”(国家人

文社会科学基金项目)、“朝鲜实学派文学与中国文化之关联研究”(教育部普通高校人文社科重点研究基地重大项目)、“韩国古典美学思想研究”(教育部普通高校人文社科重点研究基地重大项目)等大型项目的实施,不仅体现了本学科现有的科研能力和水平,更体现了本学科在朝鲜—韩国语言文学学科领域中其他国内外学科所无法比拟的科研特色与优势。

本学科特色与优势的核心就是“双语双文化”。延边大学地处中国东北,毗邻朝鲜、日本,使得本学科具备了兼具朝鲜(韩国)语言文化与中国语言文化或日本语言文化的双语双文化比较研究的优势。本学科大多数成员除了熟练掌握朝鲜语与汉语以外,还能比较熟练地使用日语或英语,形成了双语双文化或多语种多文化的科研优势。因此,本学科在国内外朝鲜—韩国语言文学研究领域中具有跨语言、跨国界、跨意识形态的特殊科研优势。

同时,朝鲜—韩国语言文学学科在国际上的地位日趋显著,尤其随着中日建交、中韩建交,中国与韩国、日本、朝鲜等东亚各国的经济、文化交流的迅速发展,朝鲜语言文学学科在全国各大学相继建立。在国际上,朝鲜语言文学学科也具有比较重要的地位。在中国,无论是对促进文化发展和高等教育的国际化,还是促进经济建设,朝鲜语言文学学科都具有非常重要的地位。

认清自身的优势和特色,加以合理的发挥,以此来推进学科建设和科学研究,这正是延边大学朝鲜—韩国语言文学学科在长时间的建设实践中总结出来的宝贵经验,也是本学科所一贯坚持的原则和基本思路。

此次推出的系列丛书中不仅包括朝鲜—韩国语言、文学领域的研究,也有朝鲜—韩国语言文学与中国、日本以及其他国家语言文学的比较研究,此外还有朝鲜—韩国语言文学的教学研究。一言以蔽之,此系列丛书充分体现了延边大学朝鲜—韩国语言文学学科在“十五”期间取得的科研成就。

正如上文所述,延边大学朝鲜—韩国语言文学学科的发展,正是得益于朝鲜—韩国语言文学在国内外的学科领域里地位的提高以及影响,本学科所取得的成果更是令人瞩目、前所未有的。如不注重这些学科发展所必需

的环境,“孤注一掷”、“闭门造车”,是不可能取得任何成就的。

此系列丛书的推出,其目的之一就是将这些成果呈现给国内外广大的学者、教授、研究生等同仁们,广泛接受他们的批评,进而通过交流和切磋来实现取长补短,最终的目的当然还是要共同推进朝鲜-韩国语言文学学科的发展。

最后向此系列丛书的编撰者以及民族出版社的编辑同志们表示深深的谢意。

蔡美花

2006年元月

머 리 말

슬기로운 조선민족은 반만년이라는 기나긴 력사의 흐름속에서 찬란한 민족문화전통을 이룩하였다. 이 찬란한 민족문화전통속에는 다양하고 풍부한 민족문학유산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민족문학유산가운데는 훈민정음창제 이후에 나타난, 고유의 민족문자로 표기한 우수한 문학작품들이 있을뿐만아니라 그이전에 한자를 리용하여 조선말을 표기한 향가작품도 있으며 한자로 창작한 문학작품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학유산가운데서 한문으로 창작한 한시는 그 량이 방대할뿐만아니라 한문이 주류였던 조선중세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점하고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비록 이러한 한시들이 한문으로 기록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반영한 생활과 감정 그리고 배경은 어디까지나 조선민족 고유의것이므로 당당히 조선민족의 문학유산에 속한다.

중세조선문학유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한시작품들은 그것을 창작한 당시의 사회력사적조건과 사람들의 사상의식, 문화적수준을 보여주는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한시 문학작품들을 통하여 조선민족력사발전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수 있고 또한 중세사람들의 감정세계를 어느 정도 파악할수 있다. 이는 조선의 문학유산연구에서 한시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가를 잘 설명하여

주고있다.

한시는 일반적으로 운률의 구성방식과 반영하는 내용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누어진다. 운률과 글자수의 제한이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를 고체시라고 하고 운률과 글자수, 운각, 대구 등 여러 측면에서 엄격한 규정이 정해져있는 절구, 율시와 같은것을 근체시라고 하며 사(詞)는 신체시라고도 한다.

한시유산가운데는 악부시라고 불리우는 독특한 시형식이 있다. 악부시는 그것이 담고있는 내용에 의하여 구분되는 한시의 한 종류이다. 그러나 악부시는 반영하는 내용이 정해져있지만 여러가지 한시형식을 다 사용할수 있다는것으로 하여 형식상의 특색을 이룬다.

일찍부터 다감한 정서와 풍부한 생활감정으로 문화를 창조, 발전시켜 온 조선민족은 악부시분야에서도 훌륭한 재부를 이루어놓았다. 고구려시기의 《황조가》를 비롯하여 조선에서는 력대로 리제현의 《소악부》와 《후소악부》, 민사평의 《급암악부》, 김종직의 《동도악부》, 심광세의 《휴옹악부》, 리익의 《성호악부》, 신광수의 《관서악부》와 《성도악부》, 홍량호의 《청구단곡》, 《북새잡요》, 김려의 《황성리곡》, 《상원리곡》과 《사유악부》, 리학규의 《령남악부》, 신위의 《소악부》, 리유원의 《해동악부》, 윤달선의 《광한루악부》, 최영년의 《해동죽지》 등 많은 악부시가 창작되었으며 그것이 시집으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다시말하여 조선에서의 악부시창작은 삼국시기와 고려시기를 거쳐 리조말기까지 줄곧 발전하여 왔는바 고려시기에 이르러서는 악부시가 작가들에 의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창작되기 시작하였고 리조시기에는 높은 수준에 오르게 되었다.

지난날 많은 연구자들이 조선의 악부시유산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악부시를 학술적으로 연구하여 훌륭한 논문을 세상에 내놓기도 하였고 문학작품으로 그것을 정리하여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다 조선의 중세문학유산을 빛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악부시연구에는 아직도 논의를 심화시켜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악부시의 개념에 대하여서도 여러가지 견해가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는 개별적인 작가의 작품연구에 치우치고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어떤 작품들은 어디에 어떻게 귀속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정론이 없다.

본 논문은 악부시에 대한 지난날의 연구성과들에 토대하여 조선의 악부시유산을 전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조선악부시의 발전면모를 밝히려 한다.

본문은 조선악부시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에 기초하여 조선악부시의 특성을 민요, 참요, 풍요, 일반한시와의 연관속에서 고찰함으로써 악부시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더욱 명백히 할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악부시가 조선에서 산생되고 발전할수 있는 사회문화적 전제를 밝히고 그 발전정황을 단계별로 고찰하며 악부시의 주제면과 예술형상에서의 특징을 해설하려 하였다. 그리고 악부시의 매 발전단계의 주요하거나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고 그것을 통하여 매 단계의 악부시의 특징을 밝히려고 하였다. 또한 악부시가 조선문학유산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언급하려고 하였다.

조선에서의 악부시발전과정에 대한 연구는 조선의 시문학의 창작경향과 그 발전수준을 해명하는데 일정한 기여로 될것이며 조선중세문학에서의 한시문학의 발전정황을 정확히 해설하여 중국문학과의 연관속에서 조선민족문학의 발전면모와 그 특성을 보다 선명하게 밝혀내게 될것이다.

이 논문을 펴내면서 이 논문을 지도하여 주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종합대학 고전학과 강좌장이신 오희복교수님과 문학강좌의 김춘택교수님, 어학강좌 강좌장이신 김영황교수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린다. 뿐만아니라 이 논문의 성공을 위해 여러모로 배려를 돌려주신 연변대학 조선-한국학학원의 여러 교수님들과 연구생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과 연변대학 도서

관의 관계 사업일군들에게 진정 고마움을 표하며 이 책을 펴내주신
민족출판사 편집선생님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는바이다.

2006년 1월

저 자

차 례

제1편 총 론

제1장 조선악부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3
제1절 악부시의 개념	3
제2절 악부시와 민요, 참요, 풍요, 일반한시의 차이점	10
1. 악부시와 민요	10
2. 악부시와 참요	15
3. 악부시와 풍요	20
4. 악부시와 일반한시	29
제2장 악부시창작의 사회문화적전제	32
제1절 풍부한 노래유산	33
제2절 한자와 한문의 사용	49
제3장 조선에서의 악부시의 발생 및 발전	63
제1절 조선악부시의 출현	63
제2절 조선악부시의 발전	73
1. 주제영역의 확대	73
2. 예술형상수준의 발전	87

제2편 발전단계와 작품론

제1장 14세기이전의 악부시	119
제1절 10세기이전의 악부시	119
제2절 11~14세기의 악부시	129
1. 사회문화적환경	129
2. 악부시의 창작	130
제2장 리조 전반기 악부시의 새로운 발전	152
제1절 리조 전반기 사회문화적환경과 악부시의 창작	152
1. 15~17세기 사회문화적환경	152
2. 악부시의 창작	154
제2절 리조 전반기 악부시의 주제사상 및 예술적특성	191
1. 주제사상적특성	191
2. 예술적특성	200
제3장 리조 후반기 악부시의 왕성한 창작	210
제1절 리조 후반기 사회문화적환경과 악부시창작	210
1. 18세기이후 사회문화적환경	210
2. 악부시창작	213
제2절 제재령역의 다양화와 새로운 시가형식의 탐구	374
1. 악부시 제재의 확대	374
2. 새로운 시형식의 탐구	387
제4장 조선악부시의 문학사적가치와 그 제한성	399
제1절 조선악부시의 문학사적가치	399
제2절 조선악부시의 제한성	408
참고문헌	412
맺는말	415

제1편 총론

제1장 조선악부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제1절 악부시의 개념

악부시란 한자로 기록된 시가작품의 한 형태를 말한다. 고유의 의미에서 《악부시(樂府詩)》란 《악부의 시》이다. 악부는 본래 봉건사회에서 음악을 관리하던 관청의 명칭이었다.¹⁾

악부라는 관청에서는 궁정음악을 관리하는 한편 민간에 전해지고 있는 가요를 수집정리하는 일을 맡아하였다. 민간가요를 수집정리하는 목적은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인민대중의 사상동향을 장악하며 민간의 아름다운 노래를 수집하여 궁중의 연회나 제사에 리용하는 것이었다.²⁾ 악부에서 수집한 가요작품을 《악부시》, 혹은 《악부》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시작품이 입으로 읊는데 그쳤다면 악부는 곡을 동반하였다. 악부를 처음으로 분류할 때에 기준으로 된 것은 곡의 성격이었다. 고조선시기에 려옥에 의하여 정리되고 전해지기 시작한 《공무도하(公無渡河)》, 즉 《님아 가람 건느지 마소》를 《상화곡》의 《공후인(箜篌引)》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노래의 곡의 성격을 특징지어

1) 반고의 《한서·제악지》 참조.

2) 반고의 《한서·예문지》 참조.

3) 郭茂倩은 《乐府诗集·상화6인》에서 《공무도하》를 《공후인》의 이름으로 상화곡에 분류하여 넣었다.

분류하고 붙인 이름이다.

악부시는 본래 민간에서 불리우던 노래를 한시형식으로 정리해 놓은것을 가리킨다.

악부시는 한문운문의 한 종류로서 비록 작가들이 창작할 당시에는 노래곡조를 넘두에 두었다고 할수 있지만 오늘에 와서는 그 곡조들이 산일되었으므로 노래의 가사를 가리키는것이지 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수 있다.

중국에서의 악부시의 발전정황을 따져보면 악부라는 개념이 시대에 따라 달랐으며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있다. 처음에는 악부에서 수집하여 정리한 시들을 악부라고 하다가 후에는 노래부를 수 있는 모든 시들을 악부라하고 악부시의 옛 제목을 리용하였으며 악부시의 초기 개념을 살려 민간생활을 반영하고 지배자들의 죄행을 풍자규탄하는 악부형태의 시들도 악부시라고 하였다.⁴⁾

조선중세에는 일반적으로 운률의 구성방식과 반영하는 내용이 한문의 운문형식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되었다. 조선악부시는 그것이 반영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한 한문운문의 한 형태이다.

조선악부시는 어디까지나 민간에서 오랜 세월 널리 불리워진 노래이다. 악부시는 민간가요의 내용을 원래의 모습 그대로 소개하는데 힘을 들이며 시의 형식은 크게 중시하지 않는다. 실례로 리제현의 《소악부》에 들어있는 작품들은 7언절구의 형식을 리용하였고 홍량호의 《청구단곡》에서는 장단구 형식을 많이 썼다. 이것은 악부시가 시가의 형식을 기본으로 한 작품이 아니라 내용을 위주로 한 작품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날 민간가요를 수집하는 사람들은 서정성이 강하면서도 편폭이 비교적 긴 고시형식을 많이 리용하였다. 그리하여 고시의 대표적인 형식들인 가(歌), 행(行), 인(引)을 악부시형식으로 인정하기까지 하였었다.

4) 김영덕, 《중국문학사》(1), 연변인민출판사, 1980년.

고시의 한 형식으로서의 가, 행, 인은 압운만 하고 근체시들처럼 평측은 따지지 않으며 평성글자나 측성글자를 임의로 압운하고 한편의 시에서 운목을 자유롭게 바꿀수 있다. 민간가요를 수집정리하는데 이런 형식을 많이 리용하였던것은 그것이 노래의 주제사상적내용을 잘 살려주는데 편리하였기때문이다.

악부시의 기본특징은 주로 시작품이 반영하는 내용에서 나타난다.

악부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민간에서 불리우던 노래라 는것이다.

민간가요는 대체로 인민대중의 구비창작물이며 구전으로 전해지는것이다. 이러한 민간가요를 그대로 수집정리한 악부시에는 시인의 감정이 적게 반영되며 민간의 생활상태가 그대로 옮겨진다.

이러한 특징을 리제현의 악부시 《사리화(沙里花)》⁵⁾를 실례로 들어 설명할수 있다.

요 못된 참새야 너 어디를 싸다니는고
한해 농사가 어떤진지 모르고
늙은 홀아비 홀로 가꾼 밭인데
조며 기장이며 다 까 먹어치우누나

黃雀何方來去飛 一年農事不曾知
鰥翁獨自耕耘了 耗盡田中禾黍爲

악부시 《사리화》는 당시 봉건통치배들의 착취행위를 비유적인 수법으로 풍자한 작품이다. 농사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봉건통치배들은 농민들이 온 한해 땀 흘려 지어놓은 낱알을 모조리 빼앗아갔다. 당시 인민들은 봉건통치배들의 가혹한 수탈행위를 폭로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다. 그 노래의 주제사상적내용이 악부시 《사리화》에 그대로 재현되었다.

이처럼 악부시는 민간가요의 주제사상적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

5) 李薺賢, 《益齋集》(권 4), 亞細亞文化社, 1986년, 137페이지.